

## 터키 내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황 및 특징 고찰: 배경, 제목, 장르, 방송사,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유정숙\*\*

### 내용

1. 들어가며
2. 한국 드라마가 터키 텔레비전에서 리메이크되는  
배경 및 이유
3. 한국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에 나타난 특징 및 의미
  1. 제목
  2. 장르 및 소재
  3. 방송사, 방송시기(방송횟수), 성공요인
4. 나가며

---

\*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AKS-2019-R-41).

\*\*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

<Abstract>

**The Overal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Remake Dramas in Turkey: with a Focus on the Background, the Titles, the Genres and Themes, the Reasons for their Success**

Yoo, Jungsuk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urkish remake dramas, focusing on their titles, the themes or genres, the broadcasting TV channels, production years, and the reasons for their succes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rom 2011 to the present approximately 40 Korean dramas have been remade in Turkish TV versions. Turkish TV drama producers remake Korean dram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and also due to the shortage of their own creative and unique drama scripts. Most importantly, the cultural and emotional simil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not be underestimated. Closeness or similarity in local culture and the feeling of empathy are significantly crucial in the success of transnational TV. The titles of the Turkish remakes are modified or even reinvented to fit the public sentimentality and Turkish customs. As for the theme and genre, the majority is romance and family drama, dealing with the eternal clichés of love, betrayal, revenge, marriage, break-ups, and the secret of birth. Turkish remake dramas are adapted and changed to fit the Turkish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This cultural adaptation process is the

central part of the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n dramas. Turkish remake dramas can be seen as glocal, popular cultural content, and the result of the cultural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Turkey.

## Key Words

remake, Korean dramas, Turkish remake dramas, cultural adaptation, Cultural similarity,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 I.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현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터키 내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황 및 특징을 제목, 장르 및 소재, 방송사, 방송시기(방송횟수), 그리고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한국 드라마가 터키 텔레비전에서 리메이크되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도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 및 현지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에도 유효한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을 비롯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의 중심에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키에서의 한류의 시작과 발전의 중심에도 2005년부터 터키 국영 방송국 TRT 1채널에서 방영된 한국의 사극 드라마가 자리한다. 터키에서 한류는 2000년대 중반 한국 드라마가 터키 공중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촉발되었다(유정숙, 2019: 183).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터키 사람들의 관심은 급증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 케이 팝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터키 젊

은 층의 선호도와 인지도는 급격히 상승했다(Demet, 2017: 67-68).

터키에서의 한류와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 만 한 점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40여 편에 달하는 한국 드라마가 터키 버전으로 리메이크되어 터키 텔레비전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상은 한국 드라마(원작)에 대한 대중적 인기와 맞물려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한류의 위세가 확산되면서 여러 각국의 드라마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러브콜과 리메이크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인 이유로 리메이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아주 대별되는 지점이다(김연성, 2017: 15).

해외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와 이와 연동된 한국 대중문화의 구매 및 소비 현상을 지칭하는 한류의 통상적인 개념을 염두에 둘 때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상은 한류의 의미가 단순히 외국인들에 의한 한국 대중문화의 향유 및 소비의 차원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류의 범주가 글로벌, 트랜스내셔널 대중문화 콘텐츠의 출현 및 생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Jang and Song, 2017: 30). 즉,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한류가 수용될 때, 한류를 통해 현지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글로벌(glocal) 대중문화 콘텐츠가 출현, 생성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는 글로벌(glocal) 대중문화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이때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일국적 문화콘텐츠가 아니라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즉 초국적 문화콘텐츠로 바라보아야 하며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는 두 나라 간 문화 횡단 및 소통의 산물로 인식해야 한다(박노현, 2013: 362).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빠르게 발달하고 세계가 점점 하나의 지구촌화되어 가는 오늘날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는 국경과 지역, 문화를 넘어 활발히 유통되고 리메이크되고 있다(박재범, 2017: 114). 글로벌화 및 탈지역화, 그리고 개방이라는 세계의 문화적 흐름과 추세 속에서 나라 간, 지역 간 대중문화 콘텐츠의 리메이크 사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리메이크 현상이 빈번해진 현실적인 배경에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소비 및 수요는 점점 증대되는데 비해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과 공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한류의 인기와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장르와 포맷으로 리메이크되고 있다(이문행, 2012: 30).

리메이크란 일반적으로 기존 작품의 줄거리를 사용하여 다시 제작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 보자면 원작의 스토리와 주제를 시대나 배경에 맞게 수정하거나 각색하여 다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리메이크 개념에는 원작(작가)의 의도, 줄거리, 주제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부터 원작에 가하는 변형과 수정을 더욱 중시하여 오히려 새로운 해석과 재창조의 작업으로 보는 관점까지 실로 다양하다(이자혜, 2013: 94). 이 논문에서 리메이크의 개념은 기존 작품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를 시대와 지역에 맞게 수정하거나 각색하는 것으로 보다 폭넓게 사용하고자 한다.

범박하게 말해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대중 미디어 분야에서 리메이크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선행 논의는 주로 원작과 리메이크 작품의 비교, 대조 연구가 주를 이룬다(이자혜, 2013; Kim, 2016; 앤서니 핑·최기숙, 2013; 이인혜, 2014; 박노현, 2015a; 조인애·조규현, 2019). 다시 말해 기존의 작품과 리메이크된 작품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로서 주제 및 스토리, 캐릭터 등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논의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리메이크의 유형과 범주를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있다(이문행, 2009, 2012; 박노현, 2015b). 즉, 개별 텍스트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가 아니라 국내 혹은 국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리메이크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취합, 분석함으로써 리메이크의 전체 현황과 특징, 그리고 변화 과정(추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러한 논의는 리메이크의 유형과 범주(개념), 그리고 의미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데 보다 주력한다. 터키 내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황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는 후자의 문제의식에 좀 더 가깝다.

터키 내 한류와 관련하여 이전의 선행 연구<sup>1)</sup>에서는 터키 텔레비전에

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대중적 인기와 이에 힘입어 나타난 리메이크 현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은 하면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터키에서 나타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상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드라마가 터키 텔레비전에서 리메이크되는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를 현지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관련지어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 터키 드라마의 특징과 의미를 제목, 장르 및 소재, 방송사, 방송시기, 방송횟수, 성공요인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규명할 것이다. 한국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 및 현지화 방안에 대한 유효한 관점과 전망을 기대한다.

## II. 한국 드라마가 터키 텔레비전에서 리메이크되는 배경 및 이유

우리에게는 생소한 사실이지만 세계 드라마 시장에서 터키는 미국에 이어 제 2위 드라마 제작 및 수출 국가이다(정진영, 2019). 주변 국가인 중동과 발칸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 중국,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드라마를 수출하고 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하채림, 2019). 이러한 맥락에서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유행은 주목을 요한다.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숫자는 2011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40여 편에 달한다.

---

1) 지금까지 터키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픽셀 투르크외즈(2007), 이난아(2012), 오종진·채영길(Oh and Chae, 2013), 유정숙(2017), 유정숙·에즈기(2019), 픽셀 투르크외즈(2019)의 논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2019년에 발표된 유정숙·에즈기의 논문은 터키에서 한류의 시작과 발전 양상을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본 글로, 터키 내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황과 양상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한국 드라마가 터키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는 한류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0년대 중후반부터 터키 공중파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터키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이를 통해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중적 인기와 선호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터키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터키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한류 팬들이 등장했다. 터키에서 K-Pop과 K-Drama을 선호하는 한류 팬이 50만 명이 넘는 것<sup>2)</sup>도 터키 방송국이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 하는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터키의 경우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류 팬 층이 이미 두텁게 확보되어 있기에 시청률 경쟁에 내몰린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터키 언론 매체에서도 터키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붐을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 가장 큰 이유는 크게 한국 드라마 시나리오의 고유성 및 독창성,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터키 시청자의 높은 관심이다.

먼저, 터키의 주요 일간지인 예니사팍(Yenisafak)에 실린 “터키 드라마 분야에서 한국 보강(Dizi Sektorune Kore Takviyesi)”제목의 기사(Fatma and Aylin, 2015)에는 터키 방송국이 한국 드라마에 눈을 돌린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기사의 대부분이 실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 터키 드라마 제작자와 방송국 프로듀서들과의 인터뷰로 채워져 있어 더욱 신뢰할 만하다. 이 신문에서 터키 드라마 제작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참신하고 고유한 시나리오의 부족이다.

---

2) 터키에서 한류 팬의 규모는 50만 명이 이르며, 자발적으로 생긴 한류 관련 동호회만도 40여 개로 5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 관련 웹 사이트는 20여 개가 넘고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여 한류 및 한류 스타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터키 방송국에서 45년 일한 파룩 바이한(Faruk Bayhan) 프로듀서는 매일 수많은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터키 텔레비전의 여건 속에서 참신한 창작 시나리오를 찾는 것이 어려우며, 제작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룩 프로듀서는 한국 드라마 <착한 남자>와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리메이크했으며 시청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비롤 구벤(Birol Guven) 프로듀서도 터키에서 제작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가 힘들다며 이러한 때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공한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터키에서 TV 드라마 산업은 거대하다.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투입되고 시즌마다 새로운 드라마가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터키의 드라마 산업은 단순히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주변 국가 및 유럽 등지에 수출하기 때문에 참신하고 독특한 드라마 콘텐츠는 절실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는 터키 드라마 콘텐츠의 결락을 메우기 위한,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현실적인 ‘보장’ 전략으로 활용된다. 터키의 유명 출판사인 도안(Dogan) 미디어에서 2018년 3월부터 출간하는 케이 팝과 드라마(K-POP & Drama) 월간 잡지의 창간호에 실린 한류 드라마에 대한 기사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으로 시나리오의 독특함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꼽았다(“En Bomba K-Drama Dizileri. Kore Dizilerine Doyum Olmuyor”, 2018).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한국과 터키 문화의 유사성이다. 파룩 프로듀서는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배경으로 터키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한국 드라마를 각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후리엣(Hurriyet) 신문에서 <가족끼리 왜이래>를 리메이크한 레산 디니즈(Ressan Diniz) 프로듀서는 특히 가족 문화에 있어 터키와 한국이 매우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문화적 근접성을 리메이크의 배경이자 리메이크된 터키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이유로 설명했다.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애에 대한



메시지, 여기에 드러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성격이 리메이크하는데 적합하다(Sinem, 2017.11.16.)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터키인의 이러한 인식은 결국 소재와 주제에 있어 터키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유사성과 연관된다. 터키의 가족 드라마에 빈번히 등장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며느리와 시누이 혹은 동서들 간의 대립,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리고 대가족 모티프 등은 한국의 가족 드라마에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나 현대 사회의 시류 속에서도 가족의 전통과 가훈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 그리고 결혼식이나 명절날의 풍경 등은 터키의 가족 문화와 매우 흡사하기에 터키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한편, 구벤(Guven) 프로듀서는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가 예전 터키의 예실참 영화와 비슷하다(Fatma and Aylin, 2015.07.25.)고 설명한다. 예실참(Yesilcam)영화란 1960-1970년대 터키 영화의 전성기 때 제작된 유명한 영화들로 주로 가족 간의 갈등과 비극 혹은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멜로 드라마 장르의 영화였다. 터키의 대표 일간지 후리엣(Hurriyet) 신문에 실린 “왜 한국 드라마인가?, 그 이유는 예실참 영화 때문(Neden Kore Dizileri, Cunku Yesilcam Filmleri)”라는 기사에서 엘친 야시(Elcin Yahsi) 문화 평론가도 터키 텔레비전이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이유로 예실참 영화를 거론했다(Elcin, 2016.06.24.). 한국 드라마의 보편적 주제와 스토리가 터키 예실참 영화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난한 여자와 부유한 남자의 진실한 사랑, 대가족 안에서 노인에 대한 존경, 가족을 위한 여성 주인공의 희생,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약한 부유층 사람들 등이 공통적으로 정형화된 소재라는 것이다. 가족애와 애정을 다룬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에 터키 시청자들은 친숙함을 느끼며, 이로 인해 쉽게 수용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터키 시청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따뜻함과 친숙함과도 관련된다.

많은 한국 드라마가 터키에서 리메이크되는 배경에는 한류를 계기로 터키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터키 시청자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점, 이를 통해 터키의 드라마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인정받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드라마가 리메이크되는 배경에는 현지의 드라마 제작 여건과 상황(요구), 그리고 터키의 문화적 특성도 중요하게 작동했다. 한국 및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검증받은 한국 드라마를 터키 버전으로 리메이크함으로써 대중의 호응을 안정적으로 얻고자 하는 현지 드라마 제작자의 욕구와 기대 심리도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 Ⅲ. 한국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에 나타난 특징 및 의미

#### 1. 제목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목은 해당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영화와 드라마의 제목은 시청자나 관객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대중성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 국가의 언어적, 문화적 특징과도 연관된다. 특히 한국 드라마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터키에서 리메이크될 때 제목이 갖는 기능과 의미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제목은 원작과의 내용적 연관성, 제작자의 해석(관점),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현지화 방식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에 나타나는 특징을 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국 드라마와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의 제목

| 번호 | 한국드라마 제목      | 리메이크 제목 및 한국어 뜻                      | 번호 | 한국드라마 제목           | 리메이크 제목 및 한국어 뜻                        |
|----|---------------|--------------------------------------|----|--------------------|--|
| 1  | 천사의 유혹        | Beni Affet<br>나를 용서해줘                | 20 | 상류 사회              | YukseK Sosyete<br>상류사회                 |
| 2  | 미안하다<br>사랑한다  | Bir Ask Hikayesi<br>한 사랑의 이야기        | 21 | 마이 걸               | Ask Yalani<br>sever<br>사랑은 거것을<br>좋아한다 |
| 3  | 꽃보다 남자        | Gunes Beklerken<br>태양을 기다리며          | 22 | 불량 가족              | Aile Isi<br>가정사                        |
| 4  | 제빵왕<br>김탁구    | Ask Ekmek<br>Hayaller<br>사랑, 빵, 꿈    | 23 | 부활                 | Kis Gunesi<br>겨울의 태양                   |
| 5  | 가족끼리<br>왜이래   | Baba Candir<br>아버지는 생명               | 24 | 여름 향기              | Ruzgarin Kalbi<br>바람의 심장               |
| 6  | 넝쿨째<br>굴러온 당신 | Kocamin Ailesi<br>남편의 가족             | 25 | 욕망의<br>불꽃          | Hayat Sarkisi<br>인생의 노래                |
| 7  | 착한 남자         | Gunahkar<br>죄(인)                     | 26 | 그녀는<br>예뻐다         | Seviyor<br>Sevmiyor<br>사랑한다 안한다        |
| 8  | 가을동화          | Paramparca<br>산산조각                   | 27 | 닥터스                | Kalp Atisi<br>심장 박동                    |
| 9  | 상속자들          | Cilek Kokusu<br>딸기 냄새                | 28 | 운명처럼<br>널 사랑해      | NO:309<br>309호실                        |
| 10 | 풀하우스          | İlişki Durumu<br>Karışık<br>관계가 복잡하다 | 29 | 유리 가면              | Icimdeki Firtina<br>내 안의 폭풍            |
| 11 | 못된 사랑         | Acı Ask<br>고통스러운 사랑                  | 30 | 특수사건<br>전담반<br>TEN | Cember<br>수사망                          |
| 12 | 메이퀸           | Mayis Kralicesi<br>메이퀸               | 31 | 천국의<br>눈물          | Cennetin<br>Gozyaslari<br>천국의 눈물       |
| 13 | 미녀의 탄생        | Eve Donus<br>귀가                      | 32 | 아버지가<br>이상해        | Hayat Sirlari<br>인생의 비밀                |

|    |                |  |    |            |                                |
|----|----------------|--|----|------------|--------------------------------|
| 14 | 판다양과<br>고슴도치   | Maral:En Guzel<br>Hikayem<br>마랄: 가장 아름<br>다운 이야기 | 33 | 오작교<br>형제들 | Aslan Ailem<br>용감한 가족          |
| 15 | 사랑도 돈이<br>되나요? | Kiralik Ask<br>월세의 사랑                            | 34 | 투윅스        | Babamin<br>Gunahlari<br>아버지의 죄 |
| 16 | 그대 웃어요         | Gulumse Yeter<br>웃으면 충분해                         | 35 | 오 마이<br>금비 | Kizim<br>우리 딸                  |
| 17 | 칼잡이<br>오 수정    | Tatli Intikam<br>달콤한 복수                          | 36 | 찬란한<br>유산  | Elimi Birakma<br>내 손을 놓지 마     |
| 18 | 비밀             | Meryem<br>메리엠                                    | 37 | 옥탑방<br>왕세자 | Osmanli Tokadi<br>뺨을 치다        |
| 19 | 백년의 신부         | Beyaz Yalan<br>선의를 거짓말                           | 38 | 굿닥터        | Mucize Doktor<br>기적의 의사        |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는 총 38편에 이른다. 위의 <표 1>은 한국 드라마의 제목(원제)과 리메이크된 터키 드라마의 제목을 연도별로 목록화한 것이다. 제목의 비교는 리메이크된 드라마가 원작과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또한 현지 제작자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현지화/지역화(localization) 전략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우선, 한국 드라마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원래 제목에 충실한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의 제목은 총 38편 중에 고작 5편에 그친다. 한국 드라마 <상류사회>의 터키 리메이크 제목인 <YukseK Sosyete, 상류사회>, <메이퀸>의 <Mayis Kralicesi, 메이퀸>, 그리고 <천국의 눈물>을 터키 드라마로 리메이크한 <Cennetin Gozyaslari, 천국의 눈물>이 원제를 그대로 활용한 사례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터키 드라마 <Cennetin Gozyaslari>에서 cennet(천국)은 여주인공의 이름이라는 점이다. 한국 드라마 <천국의 눈물>에서 천국은 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달리 말해

여주인공에게 삶의 천국은 바로 잃어버린 모성이었다.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제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현지 제작자의 의도와 스토리의 중심이 여주인공의 고통과 비극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원제에 충실한 제목으로는 한국 드라마 <못된 사랑>의 터키 리메이크 작인 <Aci Ask, 고통스러운 사랑>과 <그대 웃어요>의 <Gulumse Yeter, 그대 웃으면 충분해>가 있다. 이렇듯, 원제를 그대로 차용한 제목과 원제에 충실한 터키 리메이크 작의 제목은 원작과 리메이크 드라마의 높은 연관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들 다섯 편의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는 전체적인 줄거리와 인물설정(구조)에 있어 원작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Cennetin Gozyaslari, 천국의 눈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작 시나리오를 현지의 상황 및 문화적 특성에 맞게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제작했다. 이는 원제와 리메이크 제목의 유사 여부가 두 작품의 내용적, 주제적 연관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에서 한국 드라마 제목과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의 제목을 간단히 일별해보면 원제와 리메이크 제목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원제와 다른 리메이크 드라마의 제목은 모두 33개로, 전체 38편의 드라마에 87%에 육박한다. 원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작의 주제와 내용을 현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현지의 문화에 맞게 제목을 다시 붙인 경우이다. 한국 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의 터키 리메이크 제목인 <Baba Candir, 아버지는 생명(삶)이다>, <닝쿨째 굴러온 당신>의 <Kocamin Ailesi, 남편의 가족>, <욕망의 불꽃>의 <Hayat Sarkisi, 인생의 노래>, <풀 하우스>의 <İlişki Durumu Karışık, 관계가 복잡하다>, <아버지가 이상해>의 <Hayat Sirlari, 인생의 비밀>, <오마이 금비>의 <Kizim, 우리 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Bir Ask Hikayesi, 한 사랑의 이야기>, <오작교 형제들>의 <Aslan Ailem, 용감한 우리 가족>, <불량가족>의 <Aile Isi, 가정 사>, <부

활>의 <Kis Gunesi, 겨울의 태양>, <특수사건전담반 TEN>의 <Cember, 수사망>, <굿닥터>의 <Mucize Doktor, 기적의 의사>와 같은 리메이크 드라마의 제목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제목들은 원제와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작의 주제와 내용과 밀접히 연관되거나 그것을 환기하는 제목들이다. 예를 들면,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 <Baba Candir, 아버지는 생명(삶)이다>와 <Kocamin Ailesi, 남편의 가족>의 제목은 원작의 소재와 내용을 터키 식으로 해석한 제목이다. 또한 이 드라마들은 리메이크되는 과정에서 원작의 주된 소재와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되 장면연출이나 배경설정, 그리고 세부적인 에피소드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현지의 문화와 배경에 맞게 터키 식으로 각색한 후 제작되었다. 원작의 줄거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장면이나 세부적인 에피소드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현지화 하여 각색한 후, 리메이크한 케이스이다. 이러한 현지화 작업은 리메이크한 드라마의 제목을 붙이는 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 <Gunesi Beklerken, 태양을 기다리며>, <사랑도 돈이 되나요?>를 리메이크한 <Kiralik Ask, 월세의 사랑>, <운명처럼 널 사랑해>, <NO: 309, 309호실>, <상속자들>의 <Cilek Kokusu, 딸기 향기>, <찬란한 유산>의 <Elimi Birakma, 내 손을 놓지 말아줘>, <천사의 유혹>의 <Beni Affet, 나를 용서해줘>, <백년의 신부>의 <Beyaz Yalan, 선의의 거짓말>, <칼잡이 오수정>의 <Tatli Intikam, 달콤한 복수>, <미녀의 탄생>의 <Eve Donus, 귀가>, 그리고 <옥탑방 왕세자>를 리메이크한 <Osmanli Tokadi, 뺨을 치다> 등의 제목은 원제와 전혀 다르며, 원작의 주제 및 내용과도 관련성이 적다. 이 드라마들은 원작의 스토리 라인과 등장인물에 있어서 수정과 변형을 가한 케이스이다.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리메이크한 <Gunesi Beklerken, 태양을 기다리며>에서는 원작에서 비중이 컸던 학교 이야기보다는 여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을 둘러

싼 가족 이야기가 보다 중점적으로 그려졌다.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변화를 주어 원작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한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제목은 원제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원제와 동일하거나 그에 충실한 제목은 총 38개의 리메이크 드라마 중에서 5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원제와는 다른 제목들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터키 버전으로 리메이크하는 과정에서 현지 제작자들은 원작의 시나리오를 터키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각색하거나 혹은 원작의 소재나 아이템을 차용하되 줄거리나 등장인물에 일정한 변형을 가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한국 드라마를 터키 버전으로 만드는 현지화 전략을 의미하며 이 같은 특징은 원제와 다른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의 제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2. 장르 및 소재

이 절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장르 및 소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터키 텔레비전이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르와 소재가 선호되고 수용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르는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이다. 실제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는 2-3개의 장르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 로맨스와 로맨스 코미디, 청춘 드라마와 로맨스, 액션과 코미디, 범죄와 액션 장르, 드라마와 범죄 장르, 드라마와 액션 등이 서로 섞여 있다. 그러나 로맨스와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단연 우세하다.

〈표 2〉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의 장르별 유형 및 비율

| 번호 | 장르      | 편수 | 비율   |
|----|---------|----|------|
| 1  | 로맨스     | 20 | 53%  |
| 2  | 로맨틱 코미디 | 5  | 13%  |
| 3  | 가족 드라마  | 8  | 21%  |
| 4  | 범죄      | 2  | 5.2% |
| 5  | 액션      | 1  | 2.6% |
| 6  | 판타지     | 1  | 2.6% |
| 7  | 메디컬     | 1  | 2.6% |

위의 〈표 2〉에 나타나듯이 총 38편의 터키 리메이크 작 중에서 로맨스와 로맨틱 코미디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6%에 해당한다. 로맨스 장르의 리메이크 드라마로는 〈Bir Ask Hikayesi, 미안하다 사랑한다〉, 〈Hayat Sarkisi, 욕망의 불꽃〉, 〈Kalp Atisi, 닥터스〉, 〈YukseK Sosyete, 상류사회〉, 〈Cilek Kokusu, 상속자들〉, 〈Gulumse Yeter, 그대 웃어요〉, 〈Maral: En Guzel Hikayem, 판다양과 고슴도치〉, 〈Aci Ask, 못된 사랑〉 등을 포함하여 총 20편이며, 로맨틱 코미디 작품은 〈Iliski Durumu Karisik, 폴하우스〉, 〈Seviyor Sevmiyor, 그녀는 예뻐다〉, 〈Kiralik Ask, 사랑도 돈이 되나요?〉, 〈Ask Yalani Sever, 마이걸〉, 〈N0:309, 운명처럼 널 사랑해〉까지 5편이 있다.

그 다음은 가족 드라마가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원작 〈천사의 유희〉을 리메이크한 〈Beni Affet〉, 〈제빵왕 김탁구〉의 〈Ask Ekmek Hayaller〉, 〈가족끼리 왜이래〉의 〈Baba Candir〉,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Kocamin Ailesi〉, 〈가을동화〉의 〈Paramparca〉, 〈오 마이 금비〉의 〈Kizim〉, 〈불량가족〉의 〈Aile Isi〉, 그리고 〈찬란한 유산〉의 리메이크 작인 〈Elimi Birakma〉까지 포함하여 총 8편이다. 그 밖에 범죄 드라마로는 〈특수사건전담반〉의 〈Cember〉와 〈투윌스〉의 〈Babamin Gunahlari〉 2편이 전부이다. 가장 최근작인 〈Mucize Doktor〉는 한



국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메디컬 휴먼 드라마이다.

이처럼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여 다시 제작한 터키 드라마의 장르는 로맨스(로맨틱 코미디)와 가족 드라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범죄와 액션 장르, 메디컬 드라마, 판타지 장르의 드라마가 한두 편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장르 면에서 한 쪽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터키에서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가 갖고 있는 대중성과 함께 범죄 및 마피아 장르는 터키 텔레비전에서 자국 드라마로 이미 상당수 방영되기 때문에 이들과의 차별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의 소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전술했듯이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에서 주된 이야기는 사랑과 가족 이야기였다. 먼저,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계층)이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이다. 가난한 여성과 부유한 남성 간의 로맨스는 가장 빈번한데, 예를 들면 <Gunesi Beklerken, 꽃보다 남자>, <Cilek Kokusu, 상속자들>, <Maral: En Guzel Hikayem, 판다양과 고슴도치>, <Kiralik Ask, 사랑도 돈이 되나요>, <N0:309, 운명처럼 널 사랑해>, <Paramparca, 가을동화>, <Hayat Sarkisi, 욕망의 불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남자는 미남에다가 부자이며 성격은 까칠한 경우가 많고 여자는 미녀이고 가난하지만 순수한 캐릭터이다. 남자의 가족이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지만 중국에서는 결혼이 성사된다. 터키에서 드라마의 주된 시청자는 젊은 여성들이고, 가난한 여성과 부유하고 성공한 남성의 로맨스라는 설정은 이들 젊은 여성의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상류층 집안의 딸과 가난한 집안의 아들 간의 사랑 이야기도 더러 있는데, 여기에는 <Yukse Sosyete, 상류사회>와 <Gulumse Yeter, 그대 웃어요>가 있다. 이렇듯 사회적 신분과 집안이 전혀

다른 남녀의 로맨스는 터키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이다.

사랑 이야기에는 서로의 신분과 배경을 초월하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는 낭만적인 사랑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과 음모, 그리고 복수와 같은 비극적이며 선정적인 소재도 있다. 대표적으로 <Beni Affet, 천사의 유혹>에서 여주인공은 복수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남자의 집안에 접근하며 <Eve Donus, 미녀의 탄생>에서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한 여자의 복수 담을 다룬 이야기이다. <Icimdeki Firtina, 유리가면> 또한 한 여성의 삶과 복수의 이야기이다. <가을동화>의 터키 버전인 <Paramparca>에서도 원작과 달리 사랑과 음모에 초점이 맞춰진다. 마찬가지로 <Gunahkar, 착한 남자>와 <Meryem, 비밀> 두 작품은 주인공이 애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지만 결국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복수를 실행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이렇듯 사랑과 음모, 복수로 점철된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공통점은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신분)를 감추고 복수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다. 복수를 위해 성형수술을 한다는 설정은 <Beni Affet, 천사의 유혹>, <Eve Donus, 미녀의 탄생>, <Icimdeki Firtina, 유리가면>에서도 공통적이다.

한편, 가족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는 출생의 비밀이다. <Paramparca, 가을동화>와 <Ask Ekmek Hayallar, 제빵왕 오탁구>에서는 병원에서 두 집안의 아이가 뒤바뀌지만 우여곡절 끝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 또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쫓아 힘차게 살아가는 여주인공의 삶을 다룬 <Mayis Kralicesi, 메이퀸>의 후반부는 여주인공이 자신의 친모를 극적으로 만나는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오랜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재회하는 이야기는 <Kocamin Ailesi,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중심 소재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즐겨 차용하는 통속적이며 대중적인 소재로서 여기에 나타나는 억지스러운 설정과 극적으로 과장된 연출은 속칭 막장 드라마의 대표적 특징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장르는 로맨스 및 가족 드라마가 가장 우세했으며, 소재는 구체적으로 사랑, 음모 및 배신, 복수 그리고 출생을 둘러싼 가족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다. 이러한 소재는 보통 한국 드라마의 공식내지는 클리셰(cliche)로 불리는 요소들(박노현, 2013: 349)이기도 하다. 사랑, 음모, 배신 등과 같은 소재는 글로벌한 소재로서, 가족 이야기는 한국과 터키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사성 차원에서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터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소재는 사랑, 음모, 배신, 그리고 복수이다(Ali, 2015).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국가와 지역을 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리메이크 과정에서 중요한 요건은 현지 문화와의 근접성과 대중적 친숙성이다.

### 3. 방송사, 방송시기(방송횟수), 성공요인

<표 3>은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가 방영된 터키 방송사 및 방송연도를 목록화한 것이다.

<표 3> 리메이크 드라마의 방송사 및 방송연도별 편수

| 번호 | 방송사     | 편수 | 방송연도 | 편수 |
|----|---------|----|------|----|
| 1  | Show TV | 9  | 2011 | 1  |
| 2  | Star TV | 9  | 2013 | 4  |
| 3  | Fox     | 7  | 2014 | 3  |
| 4  | TRT 1   | 4  | 2015 | 9  |
| 5  | Kanal D | 4  | 2016 | 10 |
| 6  | ATV     | 4  | 2017 | 7  |
| 7  | TV 8    | 2  | 2018 | 3  |
|    |         |    | 2019 | 1  |

터키 텔레비전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는 2011년 <천사의 유혹>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 <Beni Affet>이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에 힘입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77회까지 방영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드라마가 장수하면서 처음 1회부터 100회까지는 Show TV에서, 이후부터 마지막 회까지는 Star TV에서 나눠 방송되었다.<sup>3)</sup> 총 7개의 텔레비전 채널에서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들이 방영되었다. 가장 많은 편수를 방영한 방송사는 Show TV와 Star TV인데, 각각 9편의 작품을 방영하였다. 그 다음은 총 7편을 제작, 방영한 Fox TV가 차지한다. 가장 최근의 리메이크 드라마인 <Mucize Doktor, 굿닥터>는 Fox TV에서 높은 시청률을 거두며 인기리에 방영되다가 지난 3월에 종영하였다. 현재 이 작품은 시즌 2를 준비 중이다. 위의 7개의 방송사는 모두 지상파 채널이며 TRT 1 채널만이 유일한 터키 국영 방송 채널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영 채널에 속한다. 이 중에서 Star TV와 Kanal D 채널은 한국 드라마 원작을 방영한 적이 있다. 또한 TRT 1 채널은 터키에서 2005년 처음으로 한국 사극 <해신>을 터키어로 더빙한 후 방영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한국의 사극 드라마 장르만을 터키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터키 공영 방송사의 보수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술했듯이 터키에서 2010년을 전후하여 나타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높은 인기는 결국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유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위의 <표 3>를 보면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상은 2015년부터 2016년에까지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적으로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감소한 원인은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판권 구입과 같은 저작권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실제 한국 드라마 원작은

3) 이러한 이유로 위의 표에서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를 방영한 터키 텔레비전 방송국의 숫자는 총 39개로 표기했다.

최근까지도 터키 공중과 채널에서 꾸준히 방영되고 있다.<sup>4)</sup> 2015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는 총 9편에 이르며, 그 이듬해는 무려 10편에 도달한다. 터키 언론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터키 드라마에서의 한류 바람, 한류 열풍으로 평가했다. 2015년과 2016년 2년간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11년부터 2013년에 리메이크된 드라마에 대한 터키 시청자의 호응이 컸기 때문이다. 터키 텔레비전에서 2011년 첫 방영된 <Beni Affet, 천사의 유희>의 방송횟수는 무려 1477회이며, 이후 2013년에 <Bir Ask Hikayesi,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36회, <꽃보다 남자>를 리메이크한 2013년의 <Gunesi Beklerken>는 총 54회까지 방영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모두 리메이크에 성공한 드라마들이다.

한국 드라마와 달리 터키 드라마는 일주일에 1회 방송되며 1회 드라마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사이의 분량으로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의 성공여부는 해당 드라마의 방영횟수를 통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즉, 방송횟수는 드라마의 인기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리메이크에 성공한 작품으로는 총 36회까지 방영된 <Bir Ask Hikayesi, 미안하다 사랑한다>, 총 54회의 <Gunesi Beklerken, 꽃보다 남자>, 총 66회의 <Baba Candir, 가족끼리 왜이래>, 총 57회의 <Kocamin Ailesi, 넝쿨째 굴러온 당신>, 총 57회의 <Hayat Sarkisi, 욕망의 불꽃>, 총 28회의 <Seviyor Sevmiyor, 그녀는 예뻐다>, 총 28회의 <Kalp Atisi, 닥터스>, 총 26회의 <Yuksekk Sosyete, 상류사

---

4)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는 터키 국영 방송 TRT 1과 민영 방송사 Meltem/Mesaj TV 두 채널에서 집중 방송되다가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8년에 터키 민영 채널 Kanal 7 채널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회>, 총 40회의 <Iliski Durumu Karisik, 풀하우스>, 총 69회의 <Kiralik Ask, 사랑도 돈이 되나요>, 총 97회의 <Paramparca, 가을 동화>, 총 65회의 <NO:309, 운명처럼 널 사랑해>, 총 36회 방영된 <Cennetin Gozyaslari, 천국의 눈물>, 총 59회의 <Elimi Birakma, 찬란한 유산> 등을 포함하여 대략 25여개의 작품이 있다. 이와 반대로 방송횟수가 10회 안팎으로 실패한 리메이크 드라마들도 있는데, <Ask Ekmek Hayaler, 제빵왕 김탁구>는 10회, <Gunahkar, 착한 남자>는 7회, <Beyas Yalan, 백년의 신부>는 6회, <Mayis Kralicesi, 메이퀸>은 11회, <Ask Yalani Seviyor, 마이걸>은 7회, <Icimdeki Firtma, 우리가면>은 6회, <Ruzgarin Kalbi, 여름향기>는 9회, <Babamin Gunahlari, 투웍스>의 경우는 4회 만에 종영되었다. 이들 작품은 시청률이 저조해 조기 종영한 경우이다. 이중에서 <제빵왕 김탁구>, <착한 남자>, <메이퀸>, <마이걸>, <우리가면>, <여름향기>, 그리고 <투웍스> 드라마는 원작 시나리오를 현지에 맞게 각색하지 않고 스크립트 그대로 리메이크한 작품들이다. 각색 여부가 리메이크의 성공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리메이크에 성공한 대부분의 터키 드라마들은 한국 드라마의 스크립트(시나리오)를 터키 문화와 정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고 각색한 후, 리메이크 제작하였다. 한국과 터키의 문화에서 가장 차이가 큰 종교로 예를 들자면, 한국 드라마에서 장면의 배경이 사찰과 교회라면 그 모습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야 자연스러우며, 술을 마시는 장면은 터키 일반 대중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다른 에피소드로 수정하거나 바꾸는 각색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드라마 원작이 갖고 있는 기본 스토리와 아이디어의 참신함은 유지하면서도 스토리의 배경과 디테일한 장면 설정은 터키의 문화와 터키인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 한국 드라마를 터키 드라마로 리메이크하는 데 있어 원작 시나리오를 현지의 문화와 감성에 맞게 각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문화적 각색 작업은 한국 드라마의 현지화 혹은 지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전략의 한 축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 IV. 나가며

터키에서 한류는 2000년대 중반 한국 사극이 터키 공중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시작되었다.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터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 팝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가 증가했다. 이는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열풍으로 이어졌다. 터키에서는 현재까지 40여 편의 한국 드라마가 터키 버전으로 리메이크되어 방영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현황 및 특징을 제목, 장르 및 소재, 방송사, 방송시기, 방송횟수, 성공요인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현지의 배경과 이유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 사례가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 및 현지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도 유효한 관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 드라마가 터키에서 활발히 리메이크되는 배경에는 한류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 한국 드라마에 대한 터키 시청자의 애정과 선호를 들 수 있다. 터키 드라마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높아졌으며,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콘텐츠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지의 드라마 제작 여건과 상황을 들여다보면 참신한 시나리오의 부족과 문화적 유사성, 여기서 연원하는 정서적 친밀감과 공감의

용이성 등이 직접적인 이유이다.

한국 드라마와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의 제목을 일별해보면 원제와 리메이크 제목 간에는 연관성보다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원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작의 주제와 내용을 터키인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현지의 문화와 대중적 감성에 맞게 제목을 새롭게 붙였다. 이는 한국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 방식에 나타나는 현지화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한편,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장르는 로맨스 및 가족 드라마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재로는 사랑, 음모와 배신, 복수, 그리고 출생의 비밀이 많이 등장했다. 이는 터키 드라마의 소재와도 겹치는데, 이로 인해 터키 시청자에게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거부감 없이 쉽게 수용되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 나타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초국적 리메이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 문화와의 근접성 혹은 대중적 친숙성/공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리메이크 드라마의 성공의 기준으로 원작 시나리오의 각색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도 그대로 조응한다. 원작 시나리오를 현지의 문화와 대중적 감성에 맞게 각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색 작업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전략으로 누차 강조해온 한국 드라마의 현지화 및 지역화를 의미한다. 한국 드라마의 터키 식 현지화 작업이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전략의 한 요소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현상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이며 장르 및 소재에 있어서도 제한적, 정형적이다. 소재와 장르에 있어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양국의 드라마 제작자 및 방송국 관계자가 한국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 과정 즉, 리메이크 작품의 선정 및 시나리오 각색, 그리고 포매팅 작업에 공동 참여하는 것도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터키 드라마의 현황 및 특징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본고에서는 각각의 개별 드라마 작품에 대한 비교 분석은 다루지 못했다. 한국 드라마 원작과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의 개별 텍스트 비교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어:** 리메이크, 한국 드라마, 터키 리메이크 드라마, 문화적 각색, 문화적 근접성, 현지화 및 글로벌화

### <참고문헌>

- 곽셀 투르크외즈(2007). 터키에서의 한류와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언어문화학* 4, 19-33.
- 곽셀 투르크외즈(2019). 터키에서 한류가 한국 문화 교육에 미치는 영향-대학 과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1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10월 31일). 47-54.
- 김연성(2017).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 *제12회 아시아 TV 드라마 컨퍼런스 대회 발표문*(10월 30일). 15-25.
- 박노현(2013). 텔레비전 드라마와 한류 담론. *한국문학연구* 45, 337-368.
- 박노현(2015a). 초국적 리메이크, 서사와 문화의 공유와 분유. *상허학보* 45, 289-321.
- 박노현(2015b). 텔레비전 드라마의 월경 혹은 공유: 일본 원작의 한국 리메이크를 중심으로. *일본학* 41, 339-367.
- 박재범(2017). 드라마 '굿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 *제12회 아시아 TV 드라마 컨퍼런스 대회 발표문*(10월 30일). 114-118.
- 앤서니 핑·최기숙(2013). TV 드라마에서의 감성-<꽃보다 남자>의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61, 363-399.
- 유정숙(2017). 터키 주요 일간지에 실린 '한류' 관련 기사 분석 연구. *국제문화연구* 10.2, 21-44.
- 유정숙·쟁기제르 예즈기(2019). 터키에서 한류의 시작과 발전 양상 연구-한국

- 드라마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5. 181-210.
- 이난아(2012). 터키에서의 한류의 현황 및 전망-한류 팬클럽 ‘코리아 팬스’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11.1. 167-193.
- 이문행(2009). 미디어 콘텐츠의 장르 간 영역이동에 관한 연구: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10. 148-158.
- 이문행(2012).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리메이크 제작 특성. *한국언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10월). 25-53.
- 이인혜(2014). 리메이크 영화 <만추> 비교 분석 연구: 1981년과 2010년 작 <만추>를 중심으로 서사 비교 분석 연구. *씨네 포럼* 19. 75-113.
- 이자혜(2013). 재창조로서의 리메이크-〈현기증〉의 계승과 변형으로서의 <환송대〉. *언론학 연구* 17.1. 94-113.
- 정신영(2019).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터키 방송 공동제작협정’ 추진 맞춘. 이코노뉴스(6월 21일). 웹: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15>에서 2020년 04월 02일에 검색하였음.
- 조인애·조규현(2019). 한일 리메이크 드라마의 “캐릭터” 해석 비교 연구: 직장의 신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발표문*(6월). 227-229.
- 하채림(2019). 터키 드라마의 힘 ‘외교 갈등’ 이스라엘에서도 인기몰이. *연합신문* (3월 31일). 웹: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1052100108?input=1195m>에서 2020년 03월 25일에 검색하였음.
- Ali, Eyuboglu(2015). Turk Seyircisi Kore Dizilerini Cok Sevdi. *Milliyet*(17 October). Retrieved on 20 March. 2020 from <http://www.milliyet.com.tr/yazarlar/ali-eyuboglu/turk-seyircisi-kore-dizilerini-cok-sevdi-2133581/>.
- Demet, Firat(2017). Kuresel Yonde Ters Akis: Asya’dan Dogan Alternatif bir Populer Kultur. *Abant Kulturel Arastirmalar Dergisi* 2.3: 67-74.
- Elcin, Yahsi(2016). Neden Kore Dizileri Cunku Yesilcam Filmleri. *Hurriyet* (24 June). Retrieved on 22 March. 2020 from <https://www.hurriyet.com.tr/kelebek/keyif/neden-kore-dizileri-cunku-yesilcam-filmleri-40121672>.
- “En Bomba K-Drama Dizileri. Kore Dizilerine Doyum Olmuyor”(2018). *K-Pop & K-Drama* 3. 7-10.
- Fatma, Celik, and Izmir Aylin(2015). Dizi Sektorune Kore takviyesi. *Yenisafak*(25 July). Retrieved on 18 March. 2020 from <https://www.yenisafak.com/hayat/dizi-sektorune-kore-takviyesi-2204761>.

- Jang, Won-Ho, and Jung-Eun Song(2017). Glocal Culture and Korean Digital Cultural Contents: The Cases of Web-drama. *Journal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6. 27-35.
- Kim, Hyeon-Cheol(2016). 한국 TV 드라마의 리메이크 텍스트 특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tudies* 16. 83-98.
- Oh, Chong-Jin, and Young-Gil Chae(2013). Constructing Culturally Proximate Space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The Case of Hallyu(Korean Wave) in Turkey. *International Relation* 38. 77-99.
- Sinem, Vural(2017). Brezilya'dan Dizi Alirdik Simdi Dizi Satiyoruz. *Hurriyet* (16 Nov.). Retrieved on 16 March. 2020 from <https://www.hurriyet.com.tr/kelebek/magazin/brezilyadan-dizi-alirdik-simdi-dizi-satiyoruz-406474> 20.

|        |  |
|--------|--|
| Name   | Yoo, Jungsuk   |
| Belong | D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rciyes University, Turkey |
| E-mail | yjsnr8@gmail.com   |

|       |            |     |            |
|-------|------------|-----|------------|
| 투고일   | 2020/04/26 | 심사일 | 2020/06/03 |
| 게재확정일 | 2020/06/11 |     |            |